

1946년 성균관대 중건의 연속과 단절*

吳琨淵**

I. 머리말	III. 해방 직후 명륜전문학교 재건 시도
II.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의 설립과 폐교	IV. 성균관대 중건과 재단법인화
	V. 맺음말

• 국문초록

해방 직후인 1946년 성균관대가 중건되었다. ‘공간’ 및 이에 속한 ‘시설’과 ‘학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의 역사를 바라보면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를 성균관대와 연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성균관대는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와 단절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우선 식민지기 학교 관련자들이 해방 직후 명륜전문학교를 재건하려 했으나 이는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명륜전문학교는 조직적으로 성균관대 중건에 참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성균관대 중건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은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심산 김창숙이었다. 김창숙은 성균관대를 중건하면서 식민지기 명륜전문학교의 잔재를 최대한 청산하고자 했다. 성균관대가 전통시대 최고학부이자 관학이었던 성균관과 달리 사립대학으로 출발한 것 역시 관(국가)의 종속에 벗어나려 했던, 즉 식민지 경험의 청산, 극복, 단절의 결과였다.

주제어 : 성균관대, 명륜학원, 명륜전문학교, 김창숙, 사립대학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삼성학술연구비 학교발전 정책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2021년 10월 22일 성균한국인문학협의회 국제학술대회 “전통·근대 대학의 학술과 역할”에서 발표한 「해방 직후 근대 대학 성균관대의 중건-식민지기와와의 연속성 문제를 중심으로」를 수정한 보완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I. 머리말

성균관대학교 후문에는 “Unique Origin”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는 성균관대학교가 한국의 다른 대학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문구다. 주지하다시피 성균관대학교는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을 계승하였다. 성균관은 고려시대 국가감을 모체로 하고 있지만, 조선으로 왕조가 바뀐 후 수도가 개경에서 한양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1398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고, 그 터 위에 오늘날 성균관대학교가 서 있다. 그래서 현재 성균관대학교는 1398년을 ‘건학’ 원년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대 최고 관학인 성균관이 근대 사립대학인 성균관대로 이어지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먼저 전통시대에서 근대로 전환하면서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했다. 이때 성균관도 큰 부침을 겪었다. 일본은 식민통치를 시작하자마자 1911년 성균관을 석전 향사 중심의 경학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1930년 경학원 내 명륜학원이 설립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다시 이루어졌다. 명륜학원은 1939년 명륜전문학원을 거쳐 1942년 명륜전문학교로 이어졌지만, 명륜전문학교는 전시체제의 극성기인 1944년 폐교되었다. 명륜전문학교 자리에는 ‘조선명륜연성소’가 만들어졌고, 이 상태에서 1945년 해방을 맞았다. 1945년 해방 직후 조선명륜연성소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명륜전문학교’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1946년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重建’되었다.¹⁾

여기서 2개의 쟁점이 발생한다. 하나는 경학원의 교육기능을 담당한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와 해방 직후 중건된 성균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경학원은 물론이고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 모두 일본의 식민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가 식민지배의 일환으로 만든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식민지기 경학원을 일본의 식민통치를

1) 국어사전에서 ‘重建’의 기본적 의미는 “절이나 왕궁 따위를 보수하거나 고쳐 지음.”이다(<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A4%91%EA%B1%B4> 검색일: 2021. 12. 12).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重建’을, 이전 기관과 후신 기관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복잡한 연속과 단절의 과정을 거쳐 ‘재설립’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위한 ‘교화’ 기관이자, 지방 향교로 연결되어 유림들을 동원하는 수단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²⁾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 역시 조선총독부가 유교를 식민통치에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충군애국의 이념을 전파할 인재 양성 시설로 설립되었다. 특히 전시체제기에는 교육의 목적을 ‘황국정신에 입각한 유학을 연찬하고 국민도덕의 본의를 천명하여 충량유의한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³⁾ 따라서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를 성균관대와 직접 연결시킬 경우 필연적으로 이른바 ‘친일’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이는 성균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 대학이 직면한 민감한 문제다. 때문에 이와 같은 식민지기와의 연속성 문제는 성균관대 역사뿐만 아니라 대학사 전반에서 그동안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단, 최근 이황직과 강명숙에 의해 해방 직후 성균관대 중건에 적극 나섰던 大同會와 김창숙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면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가능해졌다.⁴⁾

또 다른 쟁점은 전통시대 최고 ‘관학’인 성균관이 근대 대학으로 중건되는 과정에서 왜 ‘국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중건 이후 성균관대가 오랫동안 사립대학으로 발전하면서, 성균관대가 사립대학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결과 이 문제에 천착하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간혹 성균관대 동문들 사이에서 성균관대가 국립대학이 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정도다. 하지만 성균관의 연속성을 따질 때 성균관대가 사립대학으로

-
- 2) 류미나, 「식민지권력에의 ‘협력’과 좌절 經學院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 2005; 정일균, 「일제의 무단통치와 경학원」, 『사회와 역사』 76, 2007; 정옥재, 「1910~1920년대 경학원의 인적 구성과 역할-司成과 講士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0(1), 2007; 정옥재, 「20세기 초 일제협력유림의 경학원 활동-이대영(1874~1950)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6, 2014.
- 3) 류미나, 「식민지기 조선의 명륜학원 - 조선총독부의 유교지식인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교육사학연구』 17-1, 2007; 박영미, 「일제 강점기 한문고등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소고」, 『한국한문학연구』 59, 2015; 이용범, 「‘한학자’ 김태준에 대하여-경학원 直員·명륜학원 강사 재직 10년간」, 『동방학지』 186, 2019; 윤해동, 「식민지기 유교 고등교육과 명륜전문학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2, 2020.
- 4) 이황직, 「해방정국의 청년 유교단체 ‘대동회’ 연구」, 『사회이론』 45, 2014; 이황직, 「군자들의 행진-유교인의 건국운동과 민주화운동」, 아카넷, 2017; 강명숙, 「해방 직후 심산 김창숙의 성균관대학 설립 운영 활동과 그에 나타난 교육관」, 『교육사상연구』 29(3), 2015.

중건된 과정 및 그 의미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방 직후인 1946년 근대 사립대학으로 중건된 성균관대에서 식민지기와의 연속과 단절 문제를, 성균관대 중건 당시에 대한 실증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해방 직후 중건된 성균관대가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둘째, 성균관대가 사립대학으로 중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여러 선행연구와 더불어, 각 학교의 설립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잘 보여주는 신문자료와 잡지자료, 그리고 성균관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교사 및 김창숙 등 관련 당사자들의 기록들을 검토할 것이다.

Ⅱ.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의 설립과 폐교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와 해방 직후 중건된 성균관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민지기 경학원에서 교육기능이 갖추어지고 그것이 제도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0년 한반도를 강점한 일본은 식민통치를 위해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고, 조선총독부는 설치 직후인 1911년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편하였다. 그런데 이 ‘개편’의 정확한 의미는 ‘성균관의 경학원으로의 전환’ 혹은 ‘경학원의 성균관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균관 폐지 후 경학원 신설’에 있었다. 경학원은 조선총독이 직접 감독하고 관할하는 조선총독부 직속기구로서, “종래의 성균관이 담당했던 관료인재의 양성이 배제된 채 文廟釋奠이란 의례만이 허락된 사회교화 기관이었다. 경학원은 조선총독부 정책을 보조하면서 조선 각지의 향교와 문묘 및 제 유림단체와 상호 ‘협력’관계를 가지며 총독부의 선전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⁵⁾

경학원은 성격상 성균관과 전혀 다른 기관이었으나, 조선총독부는 경학원의 이미지를 ‘성균관의 후신’으로 선전하였다. 이는 유림이 인식하는 성균관의 위상과 이미지를 이용하여 통제하려는 목적과 지방에 산재한 향교를 용이하게 관리하려는 목적

5) 류미나, 앞의 2005 논문, 158면.

때문이었다.⁶⁾ 많은 유림세력들 역시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경학원을 매개로 조선총독부라는 새로운 권력에 협력했다. 그 결과 경학원은 마치 성균관을 계승한 후신처럼 인식되어 버렸다.

경학원을 성균관의 후신으로 이해하는 인식은 1930년 경학원 내에 교육기관으로 설치된 명륜학원을 오늘날 성균관대학교의 전신으로 당연시하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1930년 명륜학원 설치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육백년사』는 “성균관의 교육 기능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이 감안되어 명륜학원이 탄생하였다.”고만 밝히고 있다.⁷⁾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선총독부가 명륜학원을 만든 이유는 “항일세력 저지와 조선인 교화를 환기시키기 위해 유교를 이용하려는 시책”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920년대 활발해진 각 지방 유림들의 활동들을 견제하고 유교교육기관 설립과 같은 이들의 요구를 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⁸⁾ 여기에 더해 그 직전에 이루어진 경성제국대학의 설립도 총독부가 근대적 학문기구를 통해 유학 포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영향을 주었다.⁹⁾

명륜학원 설치 의도와 관련해서 ‘1930년’이라는 설치 시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윤해동의 연구에서 소개된 바 있지만,¹⁰⁾ 명륜학원 설립 직전인 1930년 2월 3일 『중외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작년말 이래 學生事件이 잇스후 총독부당국에서는 엇더케하면 학생과 일반의 思想傾向을 지금과 가튼 방향에서 다른곳으로 돌릴수가 잇슬가하여 매우 머리를 알는 모양인데 최근에 확명한 바에 의하면 학생계의 사상은 위선별문데 □하고 일반덕으로 사상을 지도하기 위하여는 고래의 儒道를 진흥할 필요가 잇다하여 이전부터 말이잇든 明倫學院이라는 것을 經學院 안에 설립하고 각도의 유림자제를 모집하여 유교의 진리를 가르치어 이학원의 졸업생은 각지방의

6) 정일균, 앞의 논문, 42면; 49면.

7) 성균관대학교 교사편찬위원회 편, 『성균관대학교 육백년사 1398~1998 天』, 성균관대학교, 1998, 280면.

8) 류미나, 앞의 2007 논문, 58~59면.

9) 이용범, 앞의 논문, 226면.

10) 윤해동, 앞의 논문, 307면.

사상지도 敎化師라는 자격으로 채용하는 동시에 일방으로는 보통학교의 漢文과 조선어교원자격을 주기로 하였다고 한다.¹¹⁾

이 기사에서 언급된 “작년말 이래 학생사건”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의미한다. 즉, 1930년 명륜학원 설치에 그 1년 전에 발생한 광주학생운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으로 표출된 조선인 학생과 일반의 사상경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명륜학원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환언하면 3.1운동 이후 1920년대 활발해진 식민지 조선인들의 학생운동, 사상운동에 대응하여 유교를 사상 교화에 활용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경학원 내에 명륜학원을 만들었다.

물론 여기에는 유교교육기관을 원했던 조선인 유림세력들의 요구가 반영된 측면도 있었다. 1919년 3.1운동 후 조선총독부는 소위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1922년 조선 교육령을 개정하여 식민지 조선의 학제를 형식상 일본의 그것과 일치시켰다.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학교 설립과 기능 강화를 촉진했다. 특히 지방에서는 유지들이 지역 내 향교를 기반으로 보통학교 졸업생이 중등학교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기관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때 명칭은 거의 대부분 ‘명륜학원’이었다. 이들 지역 명륜학원은 초등 강습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등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¹²⁾ 일례로 함흥에서는 보통학교 4년 과정 졸업생이 중등학교에 입학하기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923년 유지들이 함흥향교 내에 함흥명륜학원을 설립하고, 보통학교 5~6학년 학과를 1개 학년으로 학생들에게 교수하여 중등학교 입학 자격을 갖추게 하였다.¹³⁾ 1930년 경학원 내에 설립된 명륜학원은 이렇게 각 지방에서 향교를 기반으로 지역 명륜학원을 만들었던 유림들의 열망이 중앙으로 수렴된 것이기도 하였다.

1930년 명륜학원의 설립에 있어서 그 의도와 목적보다 더 중시해야 하는 부분은 명륜학원의 재원 마련 방식이다. 명륜학원이 처음 구상되었을 당시부터 인건비 및 기타 경비로 매년 2만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재원 마련 문제가 제기되었다.¹⁴⁾ 결국 조선총독부는 그 재원을 각 지역의 향교 재산 중에서 향사비 등을 제외한

11) 「思想善導의 一策으로 明倫學院新設確定」, 『中外日報』 1930년 2월 3일, 2면.

12) 윤해동, 앞의 논문, 301면.

13) 「明倫學院設立」, 『朝鮮日報』 1923년 4월 15일, 석간 4면.

14) 「儒學을 振興코자 具體案을 作成中 모든 규정을 학무국이 초안중」, 『每日申報』 1930년 1월 17일,

잉여자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¹⁵⁾ 이는 당시 각 지역의 향교 재산이 府와 郡의 식민당국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덕분에 명륜학원 학생들은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각 지역 향교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순천향교의 경우 1930년도 예산의 23%가 명륜학원 한 곳에 기부되었고, 이는 단기 보조가 아닌 경상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¹⁶⁾ 단, 이러한 재정적 부담의 반대급부로 각 군의 향교는 명륜학원에 학생을 추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¹⁷⁾ 무엇보다 각 지역 향교 재산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모습은 이후 명륜전문학원과 명륜전문학교는 물론 해방 후 중건된 성균관대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서, 성균관대가 사립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주목할 지점이라 할 수 있다.

1930년 4월 21일 경학원 명륜당에서 명륜학원 개원식 및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사이토 총독을 비롯한 조선총독부 관료들과 박영효 등 조선인 귀족들, 그리고 주요 유림 등이 대거 참여하였다.¹⁸⁾ 명륜학원의 정원은 30명이었고, 처음에는 2년제로 시작했다가 1933년 3년제로 전환하였다.¹⁹⁾ 대신 1개 학년의 학생정원은 20명으로 줄었다.²⁰⁾ 1936년에는 명륜학원의 입학자격이 종래의 “상당한 한학의 소양과 실력이 있는 자”에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 바뀌었고, 본과(3년)와 연구과(2~3년)의 2개 과로 재편되었다.²¹⁾ 학생 수도 본과 총 90명, 연구과 총 20명으로 늘었다.²²⁾ 명륜학원은 이로써 점차 고등교육기관의 위상을 확보해 나갔다.

1939년 명륜학원은 명륜전문학원으로 개편되었다. 명륜학원의 명륜전문학원으로의 개편은 1936년 이래 명륜학원이 고등교육기관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던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개편의 실내용을 보면 고등교육기관에 걸맞는 학제의

2면.

15) 「所謂思想善導策에 對하여 明倫學院新設計畫을 듯고」, 『中外日報』 1930년 2월 4일, 2면.

16) 류미나, 앞의 2007 논문, 64면.

17) 윤해동, 앞의 논문, 324면.

18) 「經學院內에 盛大極한 明倫學院開院式」, 『每日申報』 1930년 4월 22일, 2면.

19) 「明倫學院年限延長 教授科目增加 오는 四월 新학기부터 실시 總督府令으로 發表」, 『每日申報』 1933년 2월 16일, 2면.

20) 「心田道場巡禮 4-明倫學院探訪記」, 『每日申報』 1935년 9월 15일, 1면.

21) 「明倫學院의 內容을 改正」, 『朝鮮中央日報』 1936년 3월 5일, 2면.

22) 「모-던化한 明倫學院 學칙을 개정」, 『每日申報』 1936년 3월 5일, 2면.

강화 모습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교과정에 일본어, 일본사와 함께 국민도덕, 교련이 들어가고, 총독의 학교 인사 권한이 강화되는 모습이 발견된다.²³⁾ 이와 같은 명륜학원의 명륜전문학원으로의 개편은 1937년부터 본격화 한 일본의 전시체제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명륜학원의 명륜전문학원으로의 개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세의 신운과 시국의 추이에 따라 이때 교육내용에 개정을 단행하여 현하와 장래 국가사회의 정세에 맞추어 조선의 사회교화 국민정신 작흥사업 등에 활동할 유위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었으므로 명륜학원을 명륜전문학원으로 개충하는 동시에 목적을 황도정신에 두어가지고 유학을 연찬하여 동양도덕의 본의를 선명하여서 총량유위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학과목도 국민도덕, 사회교육, 교련, 지나어 교수 등을 추가하기로 되었는데 명 십팔일 부령으로써 발표한 후 사월일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었다.²⁴⁾

여기서 말하는 “시세의 신운과 시국의 추이”는 1937년 중일전쟁으로 본격화한 전시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전시체제기에 명륜학원을 명륜전문학원으로 개편한 주목적은 바로 “황도정신” 하에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재조일본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일본어 기관지 『京城日報』는 이를 “非常時型的 인재육성에 매진”으로 표현했다.²⁵⁾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강요한 ‘황도유학’이 전시체제기에 명륜전문학원의 기초를 이뤘던 것이다.

명륜전문학원은 1942년 명륜전문학교로 다시 개편되었다. 개편의 기본 목적은 앞서 명륜학원이 명륜전문학원으로 개편된 것과 동일하였다. “시국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황도유학을 근본으로 하고 흥아건설에 필요한 학과를 교수”하고 “학원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하였던 것이다.²⁶⁾ 하지만 명륜전문학원의 명륜전문학교로의 개편은 학교가 전문학교령에 따라 정식 고등교육기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였다. 여기에는 당시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23) 성균관대학교 교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302면.

24) 「皇道精神下에 明倫學院改組」, 『朝鮮日報』 1939년 2월 18일, 석간 2면.

25) 「興亞色を盛つて明倫學院昇格」, 『京城日報』 1939년 2월 18일, 2면.

26) 「明倫學院面目一新-完全한 專門學校로서 새 出發」, 『每日新報』 1941년 7월 26일, 2면.

반영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이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등학교를 졸업해야만 했다. 그러나 학교가 전문학교령에 의한 전문학교가 아니라 각중학교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졸업생들은 다른 전문학교와 동등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에 따르는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졸업 후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입학 희망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²⁷⁾ 이는 일본이 중시한 황도유학의 진흥에도 부정적인 현상이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유림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명륜전문학원을 전문학교령에 따른 정식 고등교육기관인 명륜전문학교로 개편했던 것이다.

명륜전문학교로의 개편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문학교령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학교를 ‘재단법인화’ 했다는 사실이다. 이때 기본 재원은 역시 각 향교의 재산이었다. 명륜학원이 처음 설립될 당시부터 각 지역 향교 재산을 재원으로 했다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총독부 보조금도 재원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²⁸⁾ 따라서 명륜전문학교를 재단법인으로 만들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다시 향교 재산을 동원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는 유교 고등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었던 유림들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단, 향교 재산을 재원으로 했음에도 이사장을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 맡는 등 官側 인사들이 재단 이사진의 다수를 차지했다.²⁹⁾ 이는 과거 명륜학원의 학감을 학무과장이 맡았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³⁰⁾ 명륜전문학교가 형식적으로는 재단법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학으로 운영되었음 잘 보여준다.³¹⁾ 이는 해방 후 중건된 성균관대가

27) 「儒學의 指導者鍊成-明倫專門學院昇格을 目標로 猛運動」, 『每日新報』 1941년 10월 21일, 2면; 윤해동, 앞의 논문, 306-309면; 326-332면.

28) 「儒林覺醒을 促하여 儒學振興策講究」, 『每日申報』 1936년 6월 19일, 1면.

29) 윤해동, 앞의 논문, 334면.

30) 이용범, 앞의 논문, 234-235면.

31) 이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한 심사자는 “식민지기 명륜전문학교는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으로 취급되어 왔던 바, 이는 재단법인에 의해 학교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 “전문학교가 된 이후 총독부 학무국과 조선유도연합회가 학교법인의 두 축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심사자도 명륜학원은 관립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향교재산에 의존했지만 관립의 성격이 강했던 명륜학원이, 외형 상 ‘재단법인’이 되는 것만으로 그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단, “명륜전문은 사립인가 관립인가 그 성격이 모호한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꼼꼼한 실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 심사자의 지적은, 이 논문 역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바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사립 교육기관으로 출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경험, 특히 반면교사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942년 4월 30일 명륜전문학교 개교식이 경학원 내에서 열렸다. 개교식에는 총독과 정무총감 등 총독부 고위관료들과 주요 유림들이 참석했다. 미나미 총독은 이 자리에서 황도유학을 확립하기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명륜전문학교의 중대한 사명을 강조하였다.³²⁾ 명륜전문학교는 3년제로 개교했지만, 개교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4년 폐교되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전황이 불리해지자 일본은 물론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까지 전쟁에 대거 동원하면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생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전시체제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모든 것이 전쟁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많은 사립 전문학교들의 교육기능을 없애고 그 재단과 시설을 전용하여 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명륜전문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결국 명륜전문학교 터에는 폐지된 학교 대신 1944년 조선명륜연성소가 만들어져 1945년 8.15해방 때까지 일본의 단기 사상훈련기관으로 활용되었다. 조선명륜연성소에서는 1회 약 1백 명씩 10일간 합숙시켜, 1년 동안 30회에 걸쳐 3천명을 전쟁에 활용할 인력으로 훈련시킬 예정이었다.³³⁾ 그러나 조선명륜연성소가 실제 운영된 기간은 매우 짧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식민지 조선이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Ⅲ. 해방 직후 명륜전문학교 재건 시도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점령했다. 38선 이남을 점령한 미군은 군사정부를 설치하고 3년간 통치하였다. 미군정 하에서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지배로 억제된 교육에 대한 열망,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을 분출하며 여러 학교를 재건하거나 신설해 나갔다. 식민지기 말기 명륜전문학교 출신 학생과 강사들도 해방되자마자 조선명륜연성소를 접수하면서 학교를

32) 「皇道儒學의殿堂 今日, 明倫專門開校式」, 『每日新報』 1942년 5월 1일, 2면.

33) 「儒林들總立-每年三千名收容練成」, 『每日新報』 1944년 10월 5일, 2면.

재건하려 했다. 이들은 학교 접수 이후 ‘大同會’라는 이름으로 결집했다.

해방 직후 명륜전문학교 출신들의 학교 접수와 대동회 활동, 그리고 이것이 성균관대 중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최근 이황직에 의해 실증적인 재구성과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대동회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였던 유용상의 회고에 따르면, 대동회는 식민지기 명륜전문학교 내 비밀독서회였던 大同社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고 한다. 당시 대동사 학생들은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에서 전임교원으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1941년 경성콤그룹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김태준의 진보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단, 유용상은 이후 일본으로 유학하여 일본의 식민지 문화정책을 보조하던 동양문화연구소의 연구원이 되는데,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일본 식민당국과의 협력을 합리화했다.³⁴⁾

해방 직후 학교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대동회로 확대 재편된 이들은 1945년 10월 임의로 개교를 하고 신입생을 모집하는 한편, 1945년 11~12월 전국유림대회를 주도하여 유교 혁신과 성균관대학 설립 등을 논의했다.³⁵⁾ 이때 대동회는 자신들의 스승으로서 식민지기 경학원과 명륜전문학교를 이끌었던 황도유학 세력(경학원 계열 유도회)을 적극 끌어들이었다. 이황직은 이를 “사실상 옛 명륜전문의 제자와 스승들이 이끌던 대동회와 경학원 계열 유도회가 주도하여 유교계 기득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들의 1차적 관심이 자신들의 이익, 곧 “일제 시기 명륜전문학교를 유교와 성균관의 역사적 연속성 안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유교계 내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보았다.³⁶⁾

대동회의 주도권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동회는 명륜전문학교를 재건하고자 학교를 접수하고 임의로 개교를 하면서 교장으로 김현준을 초빙했다. 그러나 약 3개월만에 김현준이 물러나고 새로운 교장에 범조인이자 한학자로 유교계에서도 명망이 높던 변영만이 취임했다. 당시 학생은 약 50명 정도였다.³⁷⁾ 하지만 변영만의 교장 취임 이후에도 명륜전문학교는 제대로 재건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강명숙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명숙에 따르면, 1946년 2월 28일까지 고등교

34) 柳鎔相, 「이념보다 민족을 우선했던 ‘고뇌’의 시절」, 『新東亞』 1990년 8월, 269~270면.

35) 「成均館大學 設立決議-全國儒林大會」, 『大同新聞』 1945년 12월 10일, 1면.

36) 이황직, 앞의 책, 283면.

37) 異河潤, 「都下各大學巡禮記(二)-成均館大學 篇」, 『新天地』 1949년 10월, 199면.

육기관의 수업개시 날짜를 정리한 미군정 학무국의 자료에서 명륜전문학교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으며, 대학승격 및 설립상황을 알리는 1946년 5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도 명륜전문학교 이름이 빠져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강명숙은 “해방 직후의 약 1년간 성균관의 교육기능은 인가받은 주체에 의한 기관 운영으로 유지되기 보다는, 해방 이후의 일반적 상황처럼 학생, 동문,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치회가 명륜전문학교의 이름 아래 모여 교육시설을 접수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했다.³⁸⁾

실제로 미군정 학무국이 작성한 고등교육기관별 수업개시 일자 명단에 경성대학이나 각종 관립전문학교는 물론,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혜화전문학교 등 주요 사립전문학교가 총망라되어 있음에도 유독 명륜전문학교의 이름만 빠져 있다.³⁹⁾ 1946년 5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명륜전문학교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⁴⁰⁾ 이는 해방 직후 대동회를 중심으로 재건되었다고 하는 명륜전문학교가 미군정에 의해 제대로 된 학교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유명무실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해방 직후 혜화전문학교(현 동국대)에 재직하면서 주변에 있던 명륜전문학교에도 출강했던 이하운도 당시 명륜전문학교가 “재단, 절차 등의 미묘한 관계로 미군정 문교당국의 정식인가”를 얻지 못한 채 수업을 진행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⁴¹⁾

대동회의 명륜전문학교 재건이 난관에 봉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재원 문제였다. 이는 식민지기 명륜학원 이래로 학교가 각 지역의 향교 재산을 바탕으로 운영되었고, 특히 명륜전문학교에 와서는 향교 재산을 바탕으로 한 재단법인으로 운영된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명륜전문학교의 구조 상 각 지역 향교의 재정적 지원이 없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유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표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하지만 대동회는 학교 건물만 접수했을 뿐 전체 유림의 지지를 얻어 낼만한 대표성이 거의 없었다. 유용상의 회고에 따르면, 해방 직후 명륜전문학교

38) 강명숙, 앞의 논문, 4면.

39) History of Bureau of Education: From 11 September 1945 to 28 February 1946, pp. 24-25. (정태수 편,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상)』, 홍지원, 1992에 수록)

40) 「女子에도最高學府」, 『東亞日報』 1946년 5월 20일, 2면.

41) 異河潤, 앞의 글, 198-199면; 異河潤, 「老教授와 캠퍼스와 학생 123-自信 갖고 곳곳하게 지켜온 教壇」, 『京鄉新聞』 1974년 2월 16일, 4면.

재건 과정에서 대동회가 재정분야 장악을 통해 실권을 쥐고자 했고 이에 자신이 기성회장을 맡았는데, 보수적인 유림들이 기부금을 내놓지 않아 미군정의 대학인가를 받는데 필요한 재단기금을 절반도 모으지 못했다고 한다.⁴²⁾

대동회의 선택지는 유림 전체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인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심산 김창숙이었다. 식민지기 유림들 중에는 경학원-명륜학원 체제 및 황도유학에 협력한 이들도 있었지만, 일본의 식민지배에 맞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이들도 있었다. 식민지기 유림들이 전개한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은, 1919년 3.1운동 전후 유림들이 파리강화회의에 연명 제출한 독립 제안서인 이른바 ‘파리장서’ 관련 운동이었다.⁴³⁾ 당시 김창숙은 이 문서를 파리강화회의에 전달할 해외 파견 대표가 되어 중국으로 건너갔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27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에 압송된 김창숙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오랜 수감생활을 견뎌야 했지만, 한 번도 그 절개를 꺾지 않았다. 그 결과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김창숙은 유림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대동회가 김창숙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김창숙은 자서전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왜정 때 명륜전문학교를 설치하여 황도유림의 양성기관을 삼았는데 각군 학교 재산의 일부를 쪼개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 유지비로 충당했다. 왜정 말기에는 전문학교를 해산하고 학생은 병적에 편입시켰으며 재단법인을 명륜연성소로 바꾸고 명목 없이 잡비를 뜯어내었다. 해방 후로 학생들 중에 이은홍, 김익환 등 여러 사람이 자기네들 스스로 모여 명륜전문학원을 설립하여 변영만을 맞아다가 교장을 삼고 운영해 보았지만 유지할 재정이 나올 곳이 없어서, 몇 번이나 유도회 총본부에 와서 실정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유림 중에 책임을 맡을 만큼 역량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⁴⁴⁾

42) 柳鎔相, 앞의 글, 270면.

43) ‘파리장서’ 운동에 대해서는 임경석, 「유교 지식인의 독립운동-1919년 파리장서의 작성 경위와 문안 변동」, 『대동문화연구』 37, 2000; 임경석, 「파리장서 서명자 연구」, 『대동문화연구』 38, 2001 참조.

44) 심산사상연구회 편, 『김창숙 문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1판 8쇄), 416면.

대동회가 김창숙의 도움을 받아 명륜전문학교의 운영난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성균관대학을 만들고자 한 모습은 앞서 언급한 1945년 11~12월의 전국유림대회에서 김창숙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성균관대학 설립을 결의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대동회와 김창숙의 관계는 1946년 초부터, 신탁통치 파동을 계기로 격화된 좌우대립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이황직에 따르면 대동회 주류는 점차 좌익화되었는데, 이에 반발한 우익계열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김창숙과 접촉했다고 한다.⁴⁵⁾ 이황직은 대동회 주류의 좌경화에 대해 명륜전문학교 교수 출신의 공산주의자 김태준의 영향과 더불어, “성균관 접수 세력의 과거 친일행적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이들이 정치 활동에서 좌경화로 나아가는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⁴⁶⁾

김창숙이 전면에 나서면서 학교 설립의 주도권은 김창숙에게로 넘어갔다. 1946년 2월 10일 유도회 간부회의에서는 분열된 유림 세력들의 완전 합동을 결의하고, 3월 13일 전국유림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유도회총본부가 김창숙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1946년 6월 28일에는 김창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기성회 발기총회가 열렸다.⁴⁷⁾ 성균관대학의 초대 기성회장에는 백범 김구가 추대되었다.⁴⁸⁾ 이렇게 김창숙이 유도회총본부를 통해 유림의 중심에 서고 성균관대 중건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대동회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그리고 김창숙 주도로 1946년 9월 25일 마침내 성균관대가 중건되었다.

대동회 중심의 해방 직후 명륜전문학교 재건운동과, 그것이 김창숙 중심의 성균관대 중건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성균관대의 기존 교사(책, 홈페이지, 박물관) 속에 등장하는 설명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존 교사는 1946년 9월 성균관대 중건을 해방 직후 재건된 명륜전문학교와 이석구의 학림사의 통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균관대 박물관의 판넬 설명에 “성균관대학은 명륜전문학교와 학림사 재단이 통합되어 설립된 것이다.”라고 명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성균관대학교 육백년사』 역시 “명륜전문학교를 바탕으로 성균관대학 재단을 만들어 사립대학으로 재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든지, “명륜전문학교의 부활은 어디까지나

45) 이황직, 앞의 책, 321~322면.

46) 이황직, 위의 책, 640면.

47) 성균관대학교 교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312면.

48) 성균관대학교 교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320면.

성균관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었다”라든지, “마침내 재단법인 명륜전문학교에 학봉 이석구의 재단법인 學隣舍를 희사받고, 그 밖에 재단법인 善隣會 등의 기부를 받아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방 직후 재건된 명륜전문학교가 성균관대 중건에서 하나의 주체였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⁴⁹⁾

해방 직후 대동회가 학교를 접수하고 명륜전문학교 재건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기록들을 보았을 때 과연 명륜전문학교가 재건 혹은 부활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시도는 있었으나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설사 명륜전문학교의 자치적 운영을 재건이나 부활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방 직후의 명륜전문학교를 성균관대 중건의 모체가 되는 ‘재단법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들이 재단법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단법인의 기초가 되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성균관대의 기존 교사는 식민지기인 1942년 명륜전문학교가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것을 염두하고 이를 해방 직후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해방 직후 명륜전문학교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재건’이나 ‘부활’보다는 ‘재건 시도’ ‘재건운동’ 정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마디로 해방 직후 명륜전문학교는 성균관대 중건의 주체로 볼 수 없다. 성균관대 중건은 김창숙 주도의 새로운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IV. 성균관대 중건과 재단법인화

성균관대 중건 과정에서 주목할 지점은 앞서 살펴본 성균관대 중건의 주체, 특히 주도권의 변화 양상이다. 처음 주도권을 잡은 측은 식민권력이 떠난 학교를 접수하고 명륜전문학교를 재건하고자 했던 과거 식민지기 명륜전문학교의 관련자들이었다. 이들은 학교와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간을 접수하

49) 성균관대학교 교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309면; 311면; 315면.

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가 모두 조선총독부가 식민지배의 일환으로 만든 교육기관이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전시체제 하 황도유학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친일’ 문제와 같은 식민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결국 식민지기 명륜전문학교 관련자들의 한계와 이와 연동된 대표성 결여는 성균관대 중건의 주도권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김창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가 되었다.

김창숙은 성균관대를 중건하면서 식민지기 명륜전문학교의 잔재를 최대한 청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1946년 9월 성균관대 중건 후 김창숙은 당국에 교수 및 강사 채용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명숙은 이 교수 및 강사진 명단을 분석한 후 그 특징을 “유교계 혁신을 염두에 두고 인적 청산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선 명륜전문학교나 조선명륜연성소의 관계자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⁵⁰⁾ 그런 의미에서 성균관대 중건의 기본 정신은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와의 ‘단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창숙이 1946년 성균관대학 개교식에서 학생들에게 “본대학에 재학중에 있어서는 재학생의 맞형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는 본대학 출신의 제일선봉이 되게 된 처지”라는 점을 역설한 것이나,⁵¹⁾ 1953년 『성균관대학교신문』 창간사를 통해 일본이 식민지배 과정에서 “성균관을 경학원이라 개칭하고 허울좋은 명륜학원이란 것을 설립하여 그 악랄한 동화정책의 교육을 실시”했음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도 이러한 ‘단절’의 측면을 잘 보여준다.⁵²⁾ 김창숙의 ‘단절’ 의지는 학교 외 성균관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강하여, 1946년 5월 유도회총본부에서 토론한 제1안건이 “성균관의 숙청 및 유지”였을 정도였다.⁵³⁾

하지만 해방 직후 중건된 성균관대가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가 존재했던 그 공간 속에 중건된 성균관대가 위치했다. 중건된 성균관대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과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의 시설과 물품 등을

50) 강명숙, 앞의 논문, 6~7면.

51) 金昌淑, 「訓辭-本大學開校式時의學長의第一聲」, 『成均』 창간호, 1946년 12월, 6면.

52) 성균관대학교 교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338면.

5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국역)심산유고』, 국역심산유고간행위원회, 1979, 818-819면.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현재 성균관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성균관대 초기 학교봉투를 보면, 과거 ‘명륜전문학교’에서 학교명을 표기하고 사용하던 것을 그 명칭에 줄만 긋고 계속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적 연속성은 그 속에서 공부하던 사람들, 즉 학생들의 연속성으로 이어졌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성균관대 총동창회의 정회원 규정이다. 1946년에 증건된 성균관대의 제1회 졸업식은 원래 1950년 8월에 거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졸업식 직전 6.25전쟁이 발발하여 학교가 부산을 피난을 떠나는 바람에 그 다음해인 1951년 8월에 제1회와 제2회 졸업식이 함께 열리게 되었다. 1951년 처음으로 성균관대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총동창회가 만들어졌다. 당시 총동창회 회칙을 보면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정회원은 “명륜학원 졸업생으로부터 명륜전문학원, 명륜전문학교, 성균관대학 전문부, 성균관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되었다.⁵⁴⁾ 현재 성균관대 기록보존실에 소장되어 있는 1956년 『성균관대학교 동창회회원명부』에도 성균관대 졸업생 외에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 졸업생의 명단이 함께 수록되었다.⁵⁵⁾

성균관대 학교당국도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 학생들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명륜학원 제5회(1937년) 졸업생인 서예가 김여 유희강의 유품 중에는, 1950년 6월 26일 유희강이 성균관대학장 김창숙 명의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와 「학업성적증명서」가 있다. 즉, 해방 직후 증건된 성균관대에서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 졸업생들의 학적을 관리하고 증명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946년 9월 성균관대가 정식으로 증건되었을 때 학교당국은 그 직전 ‘무인가 명륜전문학교’를 다녔던 1학년 수료자들을 성균관대 전문부 2학년으로 편입시키기도 했다.⁵⁶⁾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와 해방 직후 증건된 성균관대의 연속과 단절 문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관립 학교가 사립 학교, 특별히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그 의미이다. 김창숙은 성균관대를 증건하면서 성균관과 학교를 ‘재단법인’으로 만들고, 각 지역 향교 재산을 그 재원으로 삼았다. 여기에

54) 민병하 외, 『성균관대학교사 1398-1978』,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8, 853면.

55) <http://archives.skku.edu/servlet/com.avatar.cybr.srch.dctl.SrchViewCmd> (검색일 2021. 12. 12.)

56) 異河澗, 앞의 1949 글, 199면.

이석구의 재단법인 학림사 재산과 재단법인 선린회의 기부가 더해졌다. 각 지역 향교 재산을 학교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이미 식민지기 명륜학원 이래 지속된 관행이었고,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 역시 명륜전문학교 설립 당시의 방식이었다. 일견 해방 직후 성균관대 증건은 식민지기 학교 설립과 운영 방식을 차용한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의 재원이 된 각 향교 재산은 1921년 총독부령에 의해 각 지역(府와 郡) 식민당국에 사실상 귀속되어 있었다. 이는 유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 포섭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해방 직후 김창숙 등 유림들은 향교 재산을 되찾아 관(국가)의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당국과 유림들 간에, 또 유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1948년 5월 17일 행정명령에 의해 135개소의 시가 5억 원의 향교 재산이 각 도 단위의 향교재단법인에 이관되었다. 그리고 그 수입 중 30%가 서울에 있는 성균관과 성균관대의 운영기금으로 쓰이게 되었다.⁵⁷⁾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유림들이 도 단위의 향교재산법인에 향교 재산을 이관하고 이 중 30%를 성균관과 성균관대의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반발하기도 했다. 개성이 그 대표적인 지역이었다.⁵⁸⁾

따라서 해방 직후 증건된 성균관대가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와 같이 향교 재산을 재원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것은, 식민지 경험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면교사로서 관(국가)의 부당한 개입과 통제를 경계하며 유교 교육기관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식민지기 명륜전문학교는 재단법인의 외피를 썼지만, 재단법인은 사실상 조선총독부 당국이 장악한 상태였다. 반면 일본의 식민통치에 맞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김창숙은 이러한 관(국가)의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했다. 구체적인 작성연도와 작성기관이 명확치는 않지만 미군정이 한국의 종교와 종교세력들을 조사한 보고서에도 김창숙의 이러한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

c. 유교

이것은 실제로 종교로서의 분류가 아니다. 그런데도 유교는 종교적인 측면

57) 「鄉校財産五億圓, 各道單位로 財團化」, 『民衆日報』 1948년 5월 20일, 2면.

58) 「開城成均館 道 編入에 開城儒林團反對」, 『南朝鮮民報』 1949년 2월 11일, 2면.

을 가지고 있다. 유교는 유교적인 자아에까지 확대된 공경에 바탕을 두고 신에 대해서 다신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 유학자들은 2개의 적대적인 집단, 즉 정통파(old line party)와 일본정부에 의해 힘을 부여받은 다른 파로 구분된다. 그들은 모두 전통학교(the Classical School)와 서울에 있는 유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요구하였다. 문화부의 노력으로 이런 두 단체는 통합되었다. 지금 그들은 그들의 계획에 화합적으로 착수하고 있으며, 화해 이전 일본에 의하여 힘을 부여받은 두 번째 집단이 요구하던 것과 같은 보조금(subsidy)을 위해 정부에 의지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다시 열 그 순간을 열망하였다.⁵⁹⁾

이 문서 속에 김창숙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정통파”는 김창숙으로 대표되는 세력이며, “일본정부에 의해 힘을 부여받은 다른 파”는 명륜전문학교를 기반으로 한 대동회 세력임을 알 수 있다. 즉 김창숙은 과거 식민지 시절처럼 보조금 같은 것 때문에 정부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해방 직후 증건된 성균관대가 전통시대와 같이 관립이 아니라 재단법인이라는 사립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한마디로 식민지기 경험과의 단절·극복을 추구한 결과였다.

당시 유림들이 향교 재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은 ‘종교의 자유’였다. ‘종교의 자유’는 미국도 중시하는 가치였다. 덕분에 향교 재산은 결국 유림들이 환수할 수 있었다. 이는 성균관대가 국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으로 증건될 수밖에 없었던 또하나의 이유를 설명해준다. 미군정은 정교분리의 원칙하에, 식민지기 ‘황도유학’의 형태로 국가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었던 유교에 대해 탈국가화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갔다.⁶⁰⁾ 이런 상황에서 유교대학의 가치를 선명하게 내건 성균관대가 국립대학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성균관대가 국립대학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유교대학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향교 재산을 바탕으로 마련된 재원을 국가에 모두 헌납하는 길뿐이었다. 실제로 국립 전북대학교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유림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미군정

59) SURVEY OF RELIGIONS IN KOREA (정태수 편,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상)』, 홍지원, 1992에 수록).

60) 강인철, 『종속과 자율-대한민국의 형성과 종교정치』, 한신대학교출판부, 2013, 470면.

으로부터 향교 재산을 이관받은 전주 지역의 유림들은 지역 내에 독자적인 고등교육 기관 설립에 나섰다. 그 결과 1948년 8월 전북향교재단에 의해 2년제 명륜학원이 설립되었다. 명륜학원은 1950년 2년제 초급명륜대학으로 승격했다. 그리고 전북종합대학교 설립 운동이 추진되자 명륜대학은 도립이리농과대학, 군산대학관과 함께 이에 가담하였다. 물론 이때 전북향교재단 이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동 재단의 재산을 전북도민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전북대학교에 편입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리하여 1951년 12월 1일 명륜대학은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으로 개편되었고, 전북대학교 후원재단의 기금 대부분은 전북향교재단의 재산이 차지했다.⁶¹⁾ 전남 지역에서도 해방 직후 유림들이 대성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대성회는 1951년 대성의숙(사립대성대학)을 설립한 뒤 1952년 국립 전남대학교가 발족할 때 문리과대학으로 개편하여 참여하였다.⁶²⁾

사실 1946년 성균관대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국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으로 귀결된 것에 대해 오늘날 성균관대 내에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부활된 성균관은 과거의 성균관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첫째 과거의 그것은 국립으로서 국가조직의 하나였으나, 부활된 그것은 국가조직에서 벗어난 한 민간 법인체로 변질하였다는 것”이라는 표현이든지,⁶³⁾ “이렇게 성립된 성균관대학은 민족사와 더불어 발전하여 온 우리 나라 최고대학인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으나, 그동안 일제가 저지른 정책으로 인해 국립대학의 전통은 되찾지 못하고 말았다”라는 표현이든지,⁶⁴⁾ “한 나라의 대학사적 정통을 이어 온 성균관은, 사립 단과대학이라는 형태로 발족될 수밖에 없었다. 대학사의 흐름은 여기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표현이든지,⁶⁵⁾ “해방이후 (중략) 민족적 정통성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기관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했다. 일제에 의해 단절되었던 성균관의 전통을 복원하는 것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다른 길을 택했다. 성균관을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일제가 남겨놓은 식민지 교육기구를 계승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중략) 이제 성균관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일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

61) 전북대학교25년사 편찬위원회, 『전북대학교25년사』, 전북대학교, 1978, 61~62면.

62) 전남대학교삼십년사 편찬위원회, 『전남대학교삼십년사 1952~1982』, 전남대학교, 1982, 33면.

63) 김상구, 『유림운동 50년사』, 흥경, 1997, 40면.

64) 성균관대학교 교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321면.

65) 馬越徹, 『한국 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 대학모델의 전파 연구』, 교육과학사, 2001, 57면.

의 수중에 넘겨졌다.”라는 표현⁶⁶⁾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해방 직후 성균관대 중건에 앞장선 김창숙 등 유림 세력들은 식민지기 권력에 의해 빼앗긴 학교와 향교 재산을 되찾아 관(국가)의 종속에 벗어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겼다. 이는 식민지 경험의 청산, 극복이자 단절을 의미했다. 여기에 종교의 자유 문제가 결합하여 유교대학으로서 성균관대는 처음부터 사립대학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V. 맺음말

해방 직후인 1946년 근대 대학으로 중건된 성균관대는 식민지기와 연속과 단절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공간’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식민지기 같은 공간에서 유교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기능한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를 성균관대와 연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공간의 연속성은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과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의 시설과 물품 등을 해방 직후 중건된 성균관대가 한동안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공간적 연속성은 그 속에서 공부하던 사람들, 즉 학생들의 연속성으로도 이어졌다. 성균관대 총동창회는 처음부터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의 졸업생들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였고, 성균관대 학교당국도 식민지기 학교 졸업생들의 학적을 계속 관리했다.

하지만 해방 직후 중건된 성균관대는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와 단절적인 성격이 더 강했다. 우선 식민지기 학교 관련자들이 해방 직후 명륜전문학교를 재건하려 했으나 이는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명륜전문학교는 조직적으로 성균관대 중건에 참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성균관대 중건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은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심산 김창숙이었다. 김창숙은 성균관대를 중건하면서 식민지기 명륜전문학교의 잔재를 최대한 청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

66) 조동원, 「성균관대학교 역사」, 『역사를 움직인 자랑스러운 성균인』 1,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2010, 23~24면.

서 성균관대 중건의 기본 정신은 식민지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명륜전문학교와의 ‘단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방 직후 성균관대가 중건되면서 전통시대 최고학부이자 관학이었던 성균관과 달리 사립으로 출발한 것 역시, 식민지기 권력에 의해 빼앗긴 학교와 향교 재산을 되찾아 관(국가)의 종속에서 벗어나려 했던, 즉 식민지 경험의 청산, 극복, 단절의 산물이었다. 역사가 긴 한국의 주요 대학들이 친일 문제와 같은 식민 잔재로 인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식민지기 학교와 단절을 지향하며 사립대학으로 성균관대를 중건한 김창숙의 선택은 명분에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단, 김창숙의 선택에는 많은 제약 조건이 따랐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46년 9월 성균관대가 중건될 당시 향교 재산은 아직 국가(미군정) 소유였기 때문에, 향교 재산을 재원으로 삼기 위해서는 관측 인사들을 학교 운영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당시 문교부 차장 오천석이 이사, 문교부 과장 윤세구가 감사로 각각 학교 운영에 참여했다. 이후에도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문제에 개입하여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계속 침해하였다. 또한 김창숙은 성균관대 중건 시 재원 마련을 위해 이석구의 학림사와 손을 잡았는데, 이는 학교 재정에 큰 기여를 한 반면 이석구의 아들 이능우와 더불어, 이석구와 가까운 조동식, 이명세 등이 이사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석구, 조동식, 이명세 모두 오늘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일제 하 협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김창숙의 선택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분명했다. 김창숙의 단절 의지와 그에 대한 제약 조건이 서로 맞물리며 중건된 성균관대에서, 이후 양자의 길항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연구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京城日報』
『京鄉新聞』
『南朝鮮民報』
『大同新聞』
『東亞日報』
『每日申報』
『民衆日報』
『朝鮮日報』
『朝鮮中央日報』
『中外日報』

金昌淑, 「訓辭-本大學開校式時の學長の第一聲」, 『成均』 창간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국역)심산유고』, 국역심산유고간행위원회, 1979
심산사상연구회 편, 『김창숙 문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1판 8쇄)
柳鎔相, 「이념보다 민족을 우선했던 ‘고뇌’의 시절」, 『新東亞』 1990년 8월
異河潤, 「都下各大學巡禮記(二)-成均館大學 篇」, 『新天地』 1949년 10월
정태수 편,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 홍지원, 1992

민병하 외, 『성균관대학교사 1398~1978』,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8
성균관대학교 교사편찬위원회 편, 『성균관대학교 육백년사 1398~1998』, 성균관대학교, 1998
전남대학교삼십년사 편찬위원회, 『전남대학교삼십년사 1952~1982』, 전남대학교, 1982
전북대학교25년사 편찬위원회, 『전북대학교25년사』, 전북대학교, 1978

강인철, 『종속과 자율-대한민국의 형성과 종교정치』, 한신대학교출판부, 2013
김상구, 『유림운동 50년사』, 홍경, 1997
우마코시 토루(馬越 徹), 『한국 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 - 대학 모델의 전파 연구』, 교육과학사, 2001
이황직, 『군자들의 행진 - 유교인의 건국운동과 민주화운동』, 아카넷, 2017

강명숙, 「해방 직후 심산 김창숙의 성균관대학 설립 운영 활동과 그에 나타난 교육관」, 『교육사상연구』 29(3), 2015

- 류미나, 「식민지권력에의 ‘협력’과 좌절 - 經學院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 2005
- _____, 「식민지기 조선의 명륜학원 - 조선총독부의 유교지식인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교육사학연구』 17(1), 2007
- 박영미, 「일제 강점기 한문고등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소고」, 『한국한문화연구』 59, 2015
- 윤해동, 「식민지기 유교 고등교육과 명륜전문학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2, 2020
- 이용범, 「‘한학자’ 김태준에 대하여 - 경학원 直員·명륜학원 강사 재직 10년간」, 『동방학지』 186, 2019
- 이황직, 「해방정국의 청년 유교단체 ‘대동회’ 연구」, 『사회이론』 45, 2014
- 임경석, 「유교 지식인의 독립운동-1919년 파리장서의 작성 경위와 문안 변동」, 『대동문화연구』 37, 2000
- _____, 「파리장서 서명자 연구」, 『대동문화연구』 38, 2001
- 정육재, 「1910~1920년대 경학원의 인적 구성과 역할 - 司成과 講士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0(1), 2007
- _____, 「20세기 초 일제협력유림의 경학원 활동 - 이대영(1874~1950)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6, 2014
- 정일균, 「일제의 무단통치와 경학원」, 『사회와 역사』 76, 2007
- 조동원, 「성균관대학교 약사」, 『역사를 움직인 자랑스러운 성균인』 1,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2010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he Re-establishment of Sungkyunkwan University Immediately in 1946

Oh, Je-yeon

In 1946, after libe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was re-established. If we look at the history of Sungkyunkwan University with a focus on 'space', it is possible to connect Myeongryunhagwon(明倫學院)-Myeongryun Professional School(明倫專門學校), which functioned as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same spa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with Sungkyunkwan University. But overall, Sungkyunkwan University has a strong disconnection from Myeongryunhagwon(明倫學院)-Myeongryun Professional School(明倫專門學校). The person who took the lead in the re-establishment of Sungkyunkwan University was Shimsan Kim Chang-sook, who devoted his life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When Kim Chang-sook re-established Sungkyunkwan University, he tried to liquidate as much as possible the remnants of Myeongryun College during the colonial period. Also, Kim Chang-sook re-established Sungkyunkwan University as a private university in order to avoid government interference as in the colonial period.

Key Words : Sungkyunkwan University, Myeongryunhagwon(明倫學院), Myeongryun Professional School(明倫專門學校), Kim Chang-sook, private university

